

# 우리나라 행정부의 시각 정체성 연구

A Study on Visual Identity of Korean Government

주저자 : 조주은(Cho, Ju-eu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 1. 서론

### 2. 정부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필요성

- 2-1 국가/정부/행정부의 개념과 디자인적 접근
- 2-2 문화적 상징으로서 정부 아이덴티티
- 2-3 조직의 효율적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서 정부 아이덴티티
- 2-4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 발전 방안으로서 정부 아이덴티티

### 3. 시대적 분석을 통한 행정부의 시각 정체성

- 3-1 행정 개념의 변화
- 3-2 조직 구조의 변화
- 3-3 디자인 특성 변화
- 3-4 시대분석을 통한 가치도출

### 4. 현 행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문제점

- 4-1 외국사례 조사
- 4-2 우리나라 행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현황
- 4-3 문제점 분석

### 5. 정부기관의 통합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제안

- 5-1 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
- 5-2 개발방향
- 5-3 18부의 시각 시스템 설계

## 6.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우리는 국가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와 있다. 교육·경제·사회복지·국방 등의 영역은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는 등 개인의 일로 여겨져 오던 일들도 법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나 통제력과 관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부(政府)는 정책의 기획과 수립·집행을 위한 조직체로서 효율적 역할 수행능력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권력 공동체로서 대표성(代表性)과 공공성(公共性)을 지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의 C.I.(Corporate Identity)는 각 부처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발하여 하나의 정부 조직체(政府組織體)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없다. 또 그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단기간의 유행이나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일반 사기업(私企業)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능력

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이미지는 그 대상의 성격과 실체를 대변하며 이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평가가 곧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란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한 조직체로서 사(私)조직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정부 조직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이미지 확립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효율적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통합적인 이미지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Abstract)

As we cannot think of our lives without a nation, it is closely related to almost every part of our daily lives. The role of govern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as an essential element of national authority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indirect and secondary characteristics in its functional performance.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be efficient in planning and executing its policies, and it needs to be representative and fair as part of a national authoritative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when symbolic and cultural importance of imag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o have an integrated identity design system that can satisfy both of these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C.I.(Corporate Identity) of each Korean administrative branch has been developed separately and sporadically, which resulted in lack of consistency as part of the government. Shape and material of their C.I.s that follow short term design trend and popularity also lack uniqueness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any private corporation. This may show that our government lacks systematic administrative capability, since image of a feature represents its characteristics and reality, and their recognition and evaluation from others become identity of the feature.

In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n identity design system that has certain rules and regularity with wide variety of possible alterations for the central administration in Korea. In order to represent this visually, identity design system with both integrity and variety of possible alteration is created based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especially the concept of Umyang-ohaeng and Samjae.

### (Keyword)

government, identity, visual image, national brand, culture, integrated design system

## 1. 서론

인류의 역사를 조감해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그려놓은 것이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도구 등은 대부분 어떤 시각적인 형식(modality)을 갖추고 있다. 인간의 믿음·사상·정서·감정까지도 어떠한 시각적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문화마다 각기 다른 시각적 형식들은 곧 그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이끄는 모든 사회적 활동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정부 또한 그 목적과 이념에 맞는 시각적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활동을 대표하는 정부기관들의 시각 정체성 확립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2002년 11월 1일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 부처들은 새로운 G.I.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가치설정 없이 단기간의 유행 타기나 제목소리 내기식의 G.I.개편은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정부란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한 조직체로서 일반 사(私)조직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公)조직으로서 사(私)조직과 구별되는 공공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는 통합적 이미지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정부조직체의 유기적인 통합에 중점을 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 우리만의 높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정부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필요성

### 2-1 국가/정부/행정부의 개념과 디자인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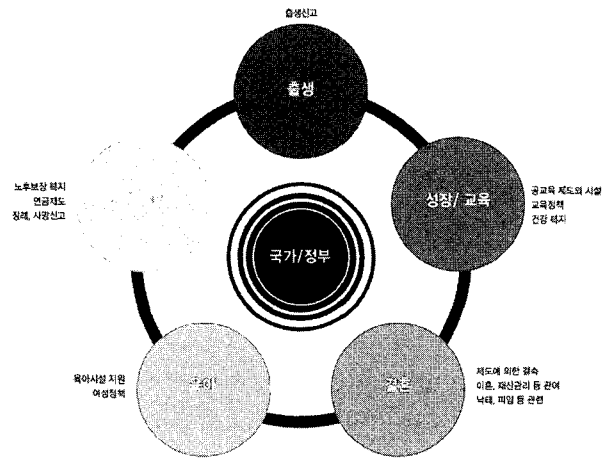
정부의 개념을 다룰 때 '국가'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국가란 하나의 사회제도면서 인간의 태도와 행위규범의 총체이지만 좁은 의미의 국가란 국민·영토·주권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부'를 갖춘 것을 말한다. 국가는 정부에 권위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공권력(public power)이며 정부는 국가의 권위를 법적으로 실현시킨다.<sup>1)</sup> 한편 정부는 독립된 통치영역으로서 입법부(立法府), 사법부(司法府)와 구별하여,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부(行政府)'를 의미하기도 한다.<sup>2)</sup>

1) G.I.(Government Identity): 정부기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보통 M.I.(Ministry Identity)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MI라는 용어 속에는 개별 부처들의 성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MI라는 용어 대신에 G.I. (Governance Identity) 또는 정부조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 표기한다.

2) 김명: 국가학, 박영사, 1995, pp. 31-33.

3) Ibid., p.77.

이렇듯 정부는 국가의 통치구조로서 국가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림 1]



[그림 1] 국가와 우리 삶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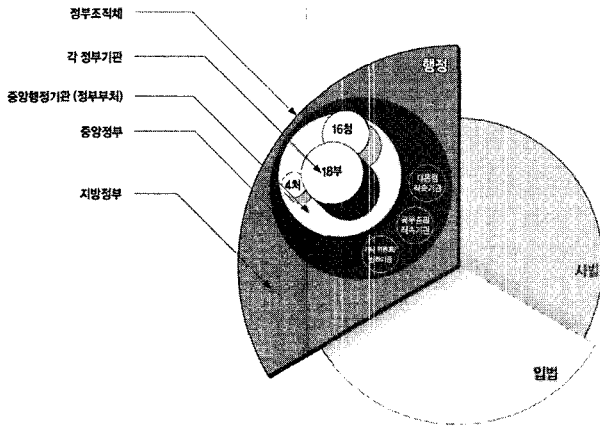
현대의 사회체제 내에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수행해왔던 역할들이 어느 정도 국제기구나 지역공동체,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에게 재배분되고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부'라 함은 정부의 규모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권위적 존재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교육·정보통신망·복지·환경보호 등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가 요구된다.<sup>4)</sup>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집단 간의 내·외부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은 국가 운영 수단으로서 권력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시스템 설계와 조직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 나아가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보다 발전적인 정부 설계와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다.<sup>5)</sup>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 관리능력은 물론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익성과 책임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지속적이고 확고한 이미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란 용어를 중앙행정부는 물론 그 밖의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행정부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이러한 정부와 정부 이미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 살펴본 후, 18부로 범위를 한정하여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을 제안해보았다. 이를 기본틀로 하여 정부조직 전체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확대·응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4) 박수영: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0, p. 34.

5) 조동성: 디자인 혁명 디자인 경영, 디자인네트, 2003, pp. 110-112.



〈그림 2〉 본 연구에서의 용어의 개념과 범위

## 2-2 문화적 상징으로서 정부 아이덴티티

우리는 일상적으로 문화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는 '상징적인 모든 것'이다. 즉, 문화란 인간이 본능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생산된 상징체계를 안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매개해 주는 어떤 것으로서 그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sup>6)</sup> 화이트헤드(A.N. Whitehead)는 그의 저서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에서 상징을 ① 예술적 표현에서의 어떤 특정한 형태나 양식, ② 언어와 수학적 부호와 같이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호들, ③ 인간의 지각행위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사회화되고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은 한 사회문화의 원형적 이미지로서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존재해 왔다. 상징이란 인간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에서 상징이란 곧 종교적 상징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삶의 근거이자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국가의 공권력인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혹은 정부의 상징은 그 사회의 총체적 문화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학문적 연구 등 전문적인 작업에서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능률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글과 언어를 보충하고 대신하는 방안으로서 시각적 이미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문화적 상징체로서 시각체계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6) 문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인식 범주로서의 문화: 문화를 정신의 일반적 상태로 보는 개념. ②구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으로서 문화: 사회의 지적·도덕적 발달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 ③기술적·구체적 범주로서의 문화: 한 사회의 예술 및 지적 작업의 총체로서 특수성, 엘리트적 전문지식 등을 의미하는 개념. ④사회적 범주로서의 문화: 한 종족의 전체 생활 방식으로 간주되는 다원주의적이며 잠재적으로 민주적인 문화 개념. - 6) 크리스 젠스크, 김윤용 옮김: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술사, 1996, p.25-26  
7) 다카하시 마사토: 심벌 디자인, 김수석 옮김, 지구문화사, 2002.

## 2-3 조직의 효율적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서 정부 아이덴티티

조직이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해나가는 체계로서 개개의 요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오늘날의 거의 모든 인간사회 현상은 조직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 조직은 ①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 또는 하위단위를 지니고, ② 특정한 공동의 목적 또는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지속되며, ③ 목적 또는 목표달성을 위해 요소와 단위 간에 상호작용을 하며, ④ 외부 환경과 일정한 경계를 지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무수한 조직이 파생하면서 거대화되고 기능적으로 합리화되었다. 또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거대하고 계층적인 조직들이 고도로 분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조직들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연하고 유동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sup>8)</sup> 이렇듯 21세기의 조직은 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상호연계를 맺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 고도로 분화되고 다양화·다원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대 조직이론들<sup>9)</sup>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치보다 통합적 관점을 중시하며 실제적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을 통한 체계적인 아이덴티티 확립과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잘 정비된 조직의 이미지는 조직의 발전을 이끈다.<sup>10)</sup>

## 2-4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 발전 방안으로서의 정부 아이덴티티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또 축적된 지식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정부는 규제자나 선도자의 역할보다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sup>11)</sup> 최근 들어 국가브랜드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브랜드란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도록 의도된 이름·용어·기호·심벌·디자인 등을 말한다. 다시말해 브랜드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지역특성이 갖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지며, 더 나아가 고유의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다른 브랜드에도 경쟁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이제는 국가

8) 권태화·조형제: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p. 22.  
9) 과학적관리론·인간관계론·의사결정론·체계이론·상황적응이론·신제도이론 등  
10) 일레로 1993년의 새로운 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이미지 정비를 병행한 후 삼성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며 90년대 말부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11) 박수영 외: 현대 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0, p. 33.  
12) 사이먼 안홀트, 김유경 옮김: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도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 브랜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어 왔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형성된다. 대체로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들은 아무리 드라마틱해도 비교적 수명이 짧은 반면,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다.<sup>13)</sup> 따라서 직접적인 말이나 단기간의 이벤트보다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이미지 관리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미지는 외국인들이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활동을 대표하는 정부기관들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확립은 그 국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며 국가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 3. 시대적 분석을 통한 행정부의 시각 정체성

현대적 개념의 국가와 행정은 종교가 국가에서부터 분리되고 국가(정부)가 국민의 모든 영역을 관할하기 시작한 때부터 형성되었다.<sup>14)</sup>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의미하며 경제공황이후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행정개념, 조직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 3-1 행정 개념의 변화

	행정학적 개념변화	키워드 추출
1930	정치행정이론론	과학성, 합리성, 능률성
1940	정치행정일원론	정치성, 수단으로서 합리성
1950	비교발전행정	특수성, 상대성
1960	신행정이론	형평성, 시대적 적실성
1970	정책과학론	다양성 수용, 과학적 정책 매커니즘
1980	공공선택이론	분권적, 다양성, 효율적 행정서비스
1990	신공공관리	유연성, 역동성, 총체적
2000	거버넌스	유기적, 종합적, 시스템적

[표 1] 시대별 행정학적 개념변화

점차 행정학의 고유의 영역만을 고집하고 이에 안주하려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관념상으로 행정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예술과 행정학과의 접목이 제기되어 시도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기획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보다는 '디자인'적 사고와 관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고안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

복스, 2003, p. 185.

13) Ibid., p. 185.

14) 유종해 · 김문성: 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p. 102.

15)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행정조직의 현상과 행태를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sup>16)</sup>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는 디자인과 행정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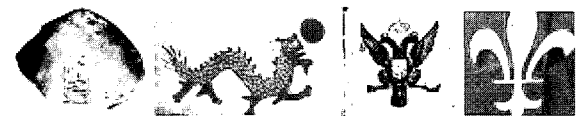
#### 3-2 조직 구조의 변화

많은 이들이 현대사회를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일컫는다.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이 압축되고 조직 간 네트워크화와 유연화가 촉진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 조직의 특성을 거대한 규모와 관료제적 경직성·폐쇄성에서 찾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정보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sup>17)</sup>

이는 곧 정부의 역할수행방법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요구 및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도 전환이 요구된다. 재정지출이나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3-3 디자인 특성 변화<sup>18)</sup>

예로부터 어떠한 사회에서건 넓은 의미의 권력조직체가 존재하고 기능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가지적인 상징물들을 사용해왔다. 이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집트왕의 상징 중국 청나라의 군기 제정러시아 기 부르봉왕가문장

가) 정치적·이념적 상징 (1930-50년대)

이데올로기와 정치성향의 표상 수단으로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던 시기이다. 독일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 기는 강력한 정치적 선동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 시기에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인 상징물들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나) 그래픽 표준화 (1960-70년대)<sup>19)</sup>

어떤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시각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이다. 1950-60년대에 발달한 기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국제주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이 적절히 결합하면서 표준화된 시각 시스템이 정부의 활동영역까지 확장 적용되었다. 1974년 5월, 미합중국 정부는 연방 정부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Federal Design Improvement Program)을 수립하였

16) Hervert Simon: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s, Boston:MIT Press, (1988), p. 129. - 정경원: 디자인경영에서 재인용.

17) 권태환 · 조형제: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p. 22.

18) 정확하게는 행정부와 각 행정기관들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살펴본다. 하나 자료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디자인을 고려했음을 밝힌다.

19) 필립. B. 맥스, 황인화 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pp. 430-441.

다. 일관성을 지닌 아이덴티티의 확립, 질적 수준의 표준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포맷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 다양화 (1980년대)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행사에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각기 자신들의 국가 홍보를 위해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올림픽에서 각 나라의 전통적 소재를 이용해 시각화하는 것은 64년 동경올림픽, 68년 멕시코올림픽의 예에서도 볼 수 있으나, 80년대 들어서의 특징은 84년 LA 올림픽의 시각시스템처럼 표준화되고 일관된 하나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을 포용하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라) 유기적 확장과 통합 (1990년대 이후)

1990년의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색채·형태·공간과 이미지들에 상상 밖의 효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래픽 디자인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넓혀 주었고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것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리뉴얼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표현으로 확장시키는, 이전의 표준화된 시각 시스템보다 더 면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디자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

	사회변화	행정개념변화	조직변화	디자인변화		
1930	전체주의	능률성			일원성 절대성	
1940	세계대전	효율성				
1950	냉전시대	특수성				
1960	데탕트/ 문화혁명	형평성			효율성 기능성 표준화	
1970	포스트모던	과학적 매커니즘				
1980	자본주의 변영의시대	다양성			다양화 특수성 상대성	
1990	격동과 변화의 시대	유연성				
2000	정보화 /디지털	종합적 시스템			유연성 총체성	

[표 2] 사회·행정·조직·디자인의 시대적 변화 key-word



3-4 시대분석을 통한 가치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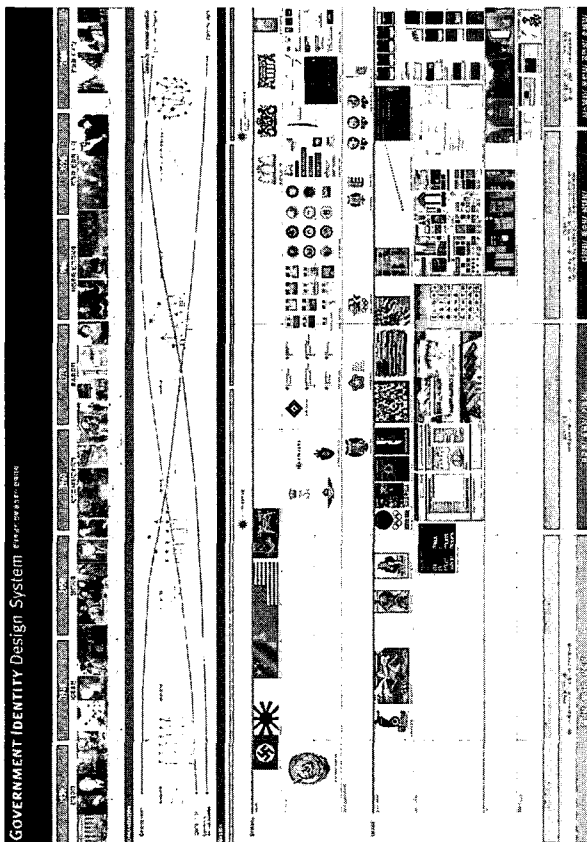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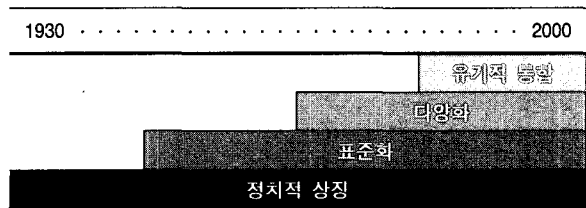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디자인 변화 분석

	1930 . . . . . 2000
행정학적 개념 변화	Bureaucracy → Governance
조직 변화	Hierarchy → Network
디자인 변화	Symbol → Visual System

[표 3] 시대적 변화추이 key-word



[표 4] 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의 가치변화와 누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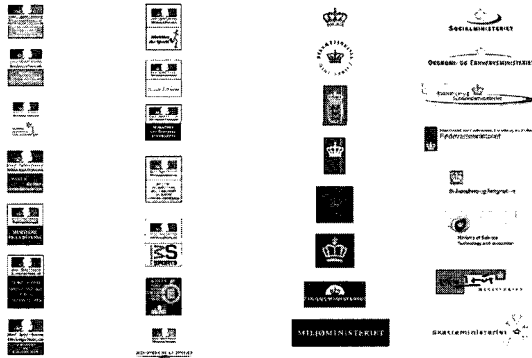
1. 지속되는 가치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대표성과 권위
2. 새로운 가치	정보화시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유기적 통합

[표 5] 정부 아이덴티티의 핵심가치도출

#### 4. 현 행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문제점<sup>20)</sup>

##### 4-1 외국사례 조사

우리나라 정부의 G.I.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이 높고 통합적인 국가 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 5개 국가 (미국·독일·프랑스·덴마크·중국)를 선정하였다.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이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 결과물에서 ①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모티브 사용, ② 통합적 이미지 확립, ③ 형태·색·비례의 일관성, ④ 각 기관별 적용의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5개 국가는 대체적으로 높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선진대열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미지의 통일성과 국가경쟁력과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20) 2004년도에 수집한 자료이므로 현재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외국사례 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분석은 조명남: 국가 이미지통합 체계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03을 참조.

#### 4-2 우리나라 행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현황 가) 18부



#### 나) 16청



#### 다) 4처



#### 라) 기타기관



### 4.3 문제점 분석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행정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①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 ② 일반기업과 차별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없다.
- ③ 지속되어온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국가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통합적인 정부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치설정 없이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국가적 상징물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상징으로는 국기·국가·문장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문장(紋章)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장은 무궁화로 1998년까지 중앙행정부처는 모양과 색채는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무궁화 마크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해왔다.



[그림 4] 개정 전의 정부마크 사용 예

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G.I.를 개발하였다. 분권·다원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과거의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명분 아래,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불과 2-3개월의 짧은 개발기간을 거쳐 새로운 G.I.를 개편하였다. 2005년 현재까지 환경부를 제외한 17개 부처가 제각기 새로운 G.I.를 도입하였다.

과연 정부부처들이 G.I.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것도 짧은 기간동안 마구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실질적으로 정부 활동은 각 기관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독립된 단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조직간의 연관성은 부처들간의 GPLCS<sup>21)</sup>라는 통합 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드러난다. 더구나 현재 새로 개발된 각 부처들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모두 기존의 무궁화를 버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 분명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sup>22)</sup>

21) GPLCS(Government Policy Life Cycle System)란 전자결재 및 웹에 의한 보고 등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문서 전자화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통합되어 있다. 실제 업무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G.I.는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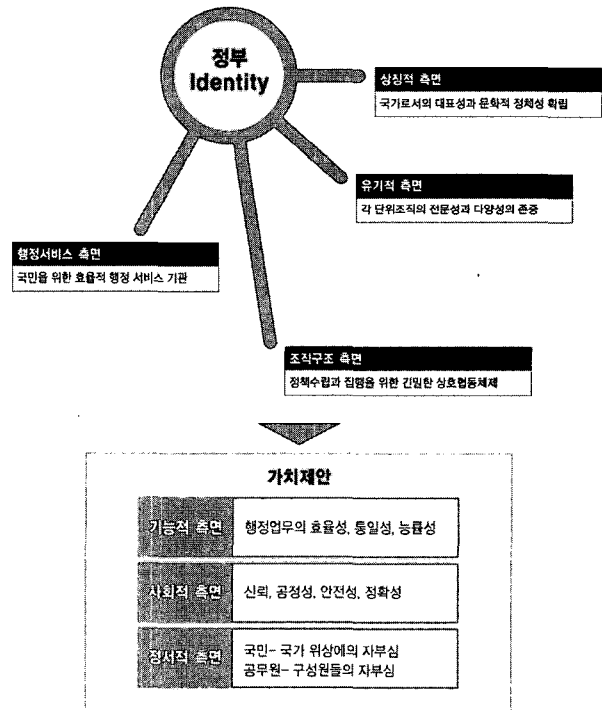
22) 18부의 심벌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심벌마크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심벌마크는 공통적으로 무궁화인 정부마크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 조명남: 국가 이미지 통합 체계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03.

국가 이미지 정체성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각적 체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단어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자주 쓰인 단어일수록 더 좋게 생각하고 자주 쓰이지 않은 단어들은 덜 좋게 생각한다는 '단순노출 호감형성 이론'이 뒷받침해 준다.<sup>23)</sup>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 정보에 친밀감이 생기고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이러한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무분별한 개편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보아야 할 때이다.

## 5. 정부기관의 통합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제안

### 5-1 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

이로써 공공성을 지닌 정부 조직체로서 보다 합당한 이미지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해졌다. 정부의 바람직한 이미지가 형성될 때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사회적 신뢰와 안정성'·'국가위상의 확립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자긍심 형성' 등, 기능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들이 확립될 수 있다.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정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을 행정서비스 측면·조직 측면·유기성 측면·상징적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sup>24)</sup>



[그림 5]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과 가치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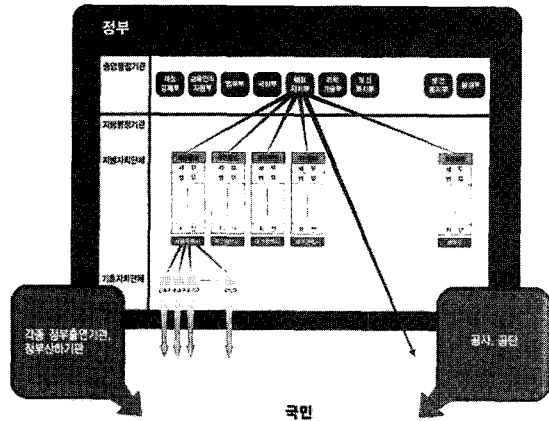
23) 홍성태: 보이지 않는 뿌리, 박영사, 1999, p. 66.

24)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4가지 관점(제품으로서의 브랜드/조직으로서의 브랜드/사람으로서의 브랜드/상징으로서의 브랜드)을 정부 아이덴티티에 응용하였다. - 데이비드 A. 아커, 이상민 옮김: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2002,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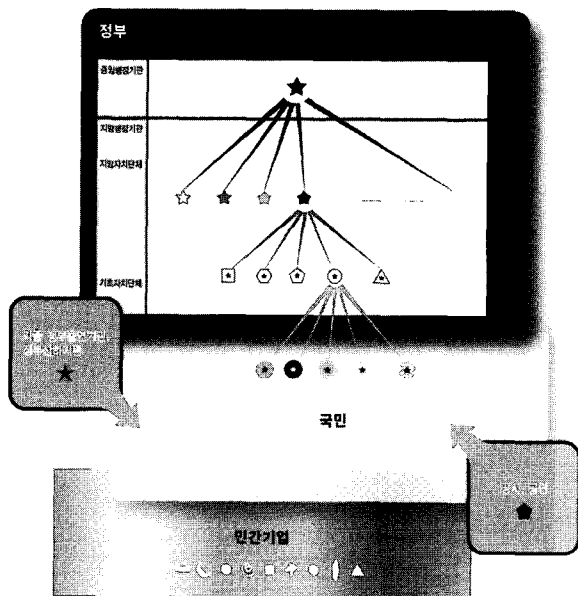


가) 행정 서비스 측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일관된 가치를 발휘해야 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운영절차가 필요하다.<sup>25)</sup>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간 정보체계구조(업무 흐름)<sup>26)</sup>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간기업과 차별되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림 6] 정부조직의 업무흐름에 따른 정보체계구조



[그림 7] 정보체계구조에 따른 이미지 시스템 체계

나) 조직구조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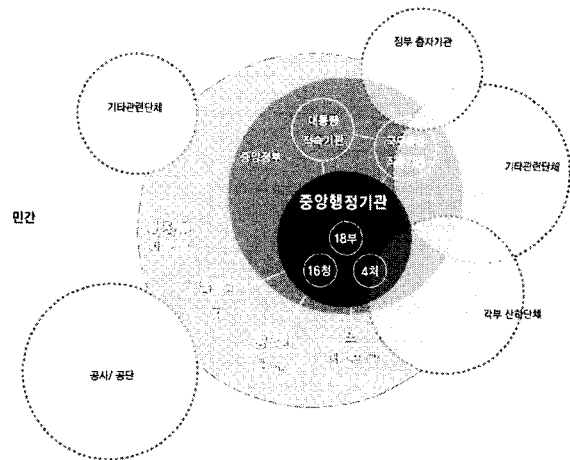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종 정부산하단체로 구분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성격의 정부관련기관들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거대하고 방대한 정부조직은 비능률적이며 그 속에서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5) "정부기관 Database Management 아키텍처 설계에 관한 연구", 공무원연구모임 우수논문집, 행정자치부, 2002, p.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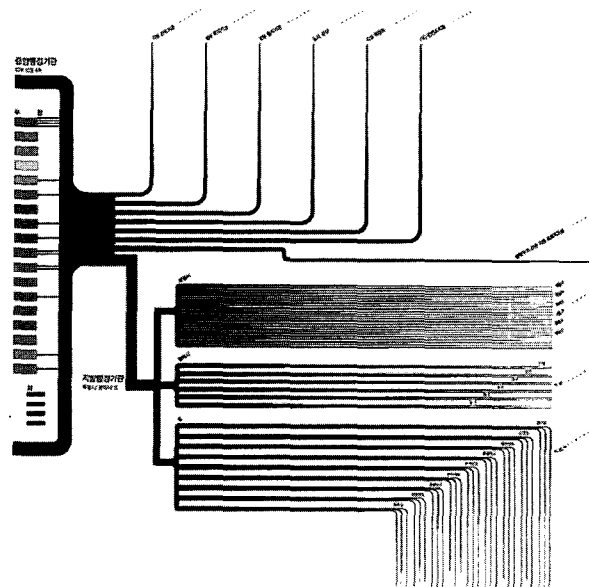
26) *Ibid.*, p. 235.

작은 정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규모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민주화·지방화의 요청에 따라 집권적 통제능력은 많이 약화된데 비해 자율적 조정 협동능력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7)</sup> 집권적 통제를 줄이면서도 조직단위 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면 각 영역에서 갖는 경계관념에 수정을 가하고 부처의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극복하여야 한다.<sup>28)</sup> 또한 각 부처들의 개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긴밀한 협동과 조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에서도 국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를 꼽았다.<sup>29)</sup> 실제 조직의 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합리화는 이미지의 합리화를 통해 가능하다. 방대한 정부기구들은 단위 별로 묶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긴밀한 연결성을 지닌 하나의 정부조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림 8] 현재 행정조직의 구조와 범위



[그림 9] 정부조직체의 통합적 이미지 시스템의 구조

27)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pp. 109-110.

28) *Ibid.*, p. 112.

29) 서성아·강경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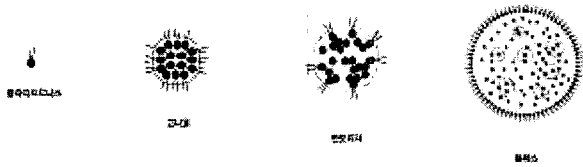
황성원·함종석: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한국행정연구원, 2001.

다) 유기성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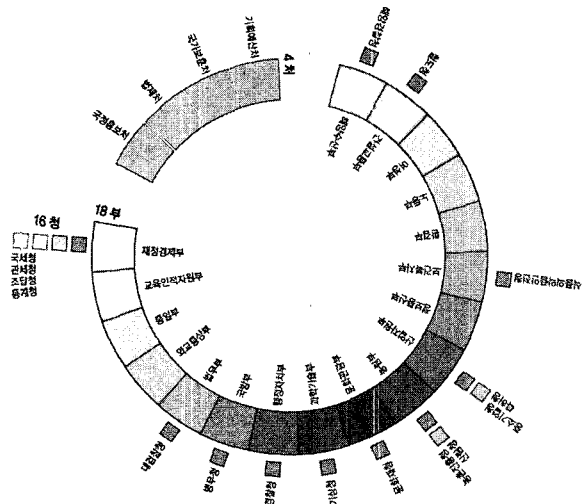
정부를 여러 기관들이 모여 이루어진 조직체로서 바라본다면 각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처럼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단세포 녹조류인 클라미도모나스는 모여서 고니움→판도리나→볼복스로 군체화 한다. 하나의 세포일 때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볼복스 안에서는 하나의 개체를 위해 움직여야 하므로 여러 세포가 모여 기관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충실한다.<sup>30)</sup>

이처럼 정부조직도 세포와 같은 효과적 역할수행을 이루어 내려면 각 부처들이 각자 맡은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 연계 속에서 각 단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림 10] 세포 간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그림 11] 부·처·청의 유기적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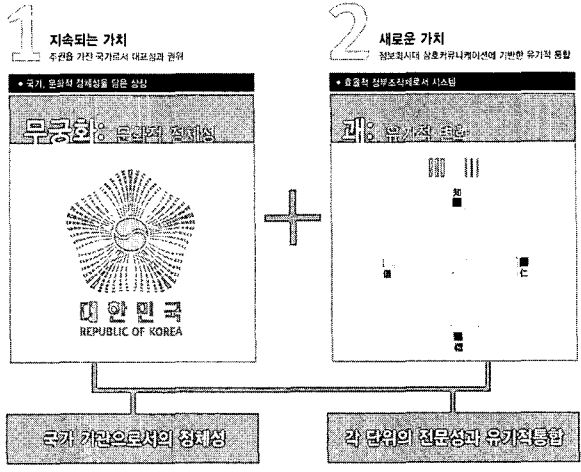
라) 상징적 측면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 공권력의 핵심으로 세계화 시대에 자신의 주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이미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이며 상징적인 이미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21세기에 이러한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조직의 통합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0) 나카무라 케이코, 박재학·이연희 옮김: 나의 DNA, 전파과학사, 1998, pp. 103-105.

5-2 개발방향



[그림 12] 정부조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제안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국장 및 정부마크로 쓰여온 모티브는 무궁화이다. 2003년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18부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심벌마크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4개의 심벌마크는 무궁화인 정부마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적·문화적 지속성을 갖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문 4-3 참조)

괘는 역(易)의 원리를 나타낸 기호로서 역은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우주 만물의 원리인 도(道)를 음양이라는 디지털 부호로 도시한 것이다.<sup>31)</sup> 이는 우리나라 국기에도 사용되듯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소재인 동시에 양자역학, DNA 구조 등 현대 과학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뜻 깊은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무궁화<sup>32)</sup>와 괘에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삼재사상(三才思想)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음양은 우주만물을 이루는 본질이며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음양의 운동과 변화의 결과로서의 오행은 인간 사회질서가 화해적이고 안정적인 전체로서 운행하도록 한다. 두 사상은 한 마디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맺으며 상생(相生)·상보(相補)하는 공리적 사상과 원리들이다.<sup>33)</sup>

사실 음양오행사상은 엄밀히 말해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의 문화적 산물도 그 완전히 나라 고유의 것이란 찾기 힘들다.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각기 특색 있는 문화를 이루고 있기는 하나 그 근본은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의 땅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도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의 것으로 체득되었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념의 세계를 어떤 원리를 세워 시각적으로 구축하

31) 하늘의 이치를 나타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서 유래하였다.  
 32) 무궁화는 5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리면서 가지가 항상 3갈래로 나뉘기에 예로부터 음양오행과 하늘땅 사람의 삼재사상을 지닌 길한 꽃으로 여겨져 왔다.  
 33) 오근재: 음양오행사상의 시각디자인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No. 22, p. 321. (1997).

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자기만이 지닌 어떤 특별한 형태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사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본문 4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지니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식원리 뿐 아니라 내용원리를 함축하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 역할수행의 핵심적 주체인 18부<sup>34)</sup>를 음양오행사상에 내재된 개념에 따라 하나의 체계 속에서 18개의 각 부가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기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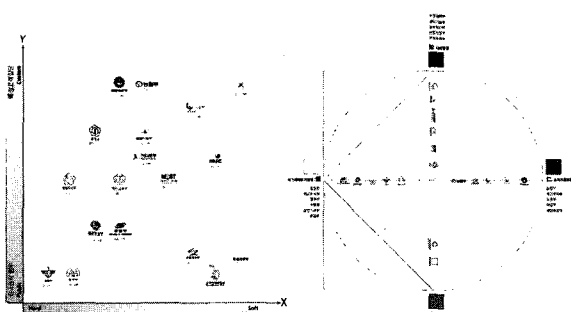
### 5-3 18부의 시각 시스템 설계

#### 가) 18부의 성격규정

각 부처가 개별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조직체로서 유기성을 잃지 않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틀 안에서 각각의 위치와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의 개념을 적용하여 18부를 분류하였다. 행정학적으로도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1) 국가의 유지 존속: 국방·외교·안전기획·검찰·경찰 등, 2) 국민의 부 증진: 경제 분야의 기관들, 3) 국민 생활의 안전과 복지 증진: 사회관련 기관들, 4) 전통 계승과 문화 발전: 문화·교육 관련 기관들로 분류하고 있는데<sup>35)</sup> 이는 위와 같은 인의 예시에 의한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① 음양(陰陽)에 의한 성격 분류	② 오성(五性) <sup>36)</sup> 에 의한 성격 분류
X축: 국가유지 ↔ 사회발전 Y축: 전국민 ↔ 특정집단	인(仁): 소외계층 보호 의(義): 국가체제 유지발전 예(禮): 문화발전 지(知): 사회발전

[표 6] 18부의 성격 분류기준



[그림 13] 18부처의 성격분류1

[그림 14] 18부처의 성격분류2

#### 나) 형태체계 원리

위의 분류에 의해 도출된 위치값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물의 조형적 측면보다는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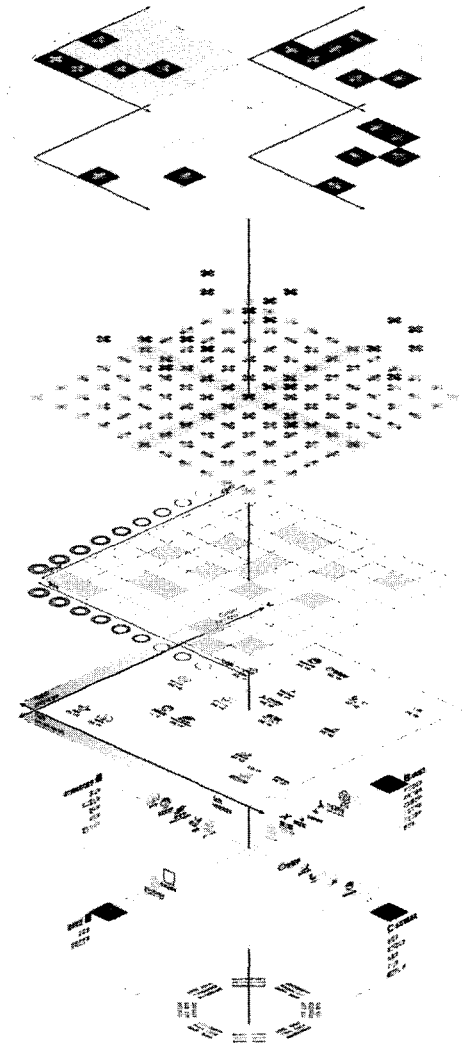
34) 분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는 행정각부가 수행한다. 행정각부에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가 있다.

35)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박영사, 2003.

36) 강진원: 일기쉬운 역의 원리, 정신세계사, 2003, p. 110.

결과물이 실제 적용의 측면이나 미적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을 밝히며, 하나의 방법론 제안으로 바라봐 줄 것을 양해드린다.

- ① 모듈: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원방각 모듈에 인(仁)·의(義)·예(禮)·지(知)에 해당하는 방위개념 적용
- ② 성격분류1의 조형원리: Bold ↔ Light한 패의 형태
- ③ 성격분류2의 조형원리: 한글꼴의 회전성·대칭성<sup>37)</sup>
- ④ 대입과 추출
- ⑤ 색상적용: 오방색의 적·청·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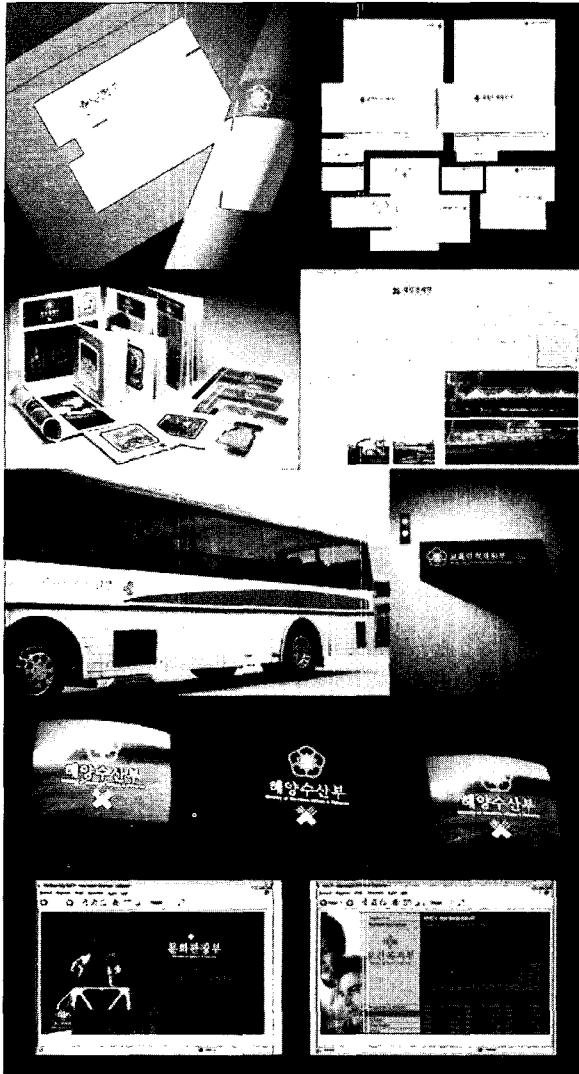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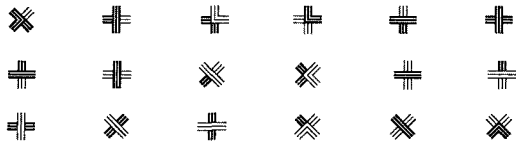


[그림 15] 행정부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37) 안상수·한재준: 한글 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pp. 28-31.

한글의 대칭성: 홀자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점을 찍고 수직선의 안팎으로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준다. 그래서 '오'자를 써놓고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리면 '아'가 되고 '우'가 되고 또 '어'가 된다. 한글의 회전성: 초중성 합자와 초중중성 합자의 자형을 분석해 보면 초성과 중성을 180도 회전시켜 활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림 16] 다양한 매체에 따른 응용 시스템 확립

## 6.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G.I.의 현상적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의 산만한 G.I.를 통합하여 세계화 속에서 독창적인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동시에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정부조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가와 정부의 이미지만 단기간이고 표면적인 활동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상징과 관련된다. 따라서 먼저 확고한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특수한 나라라도 될 것이다. 일부러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정체성에 대한 고

민은 많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것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것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상징물인 무궁화와 궤에 내재되어 있는 음양오행과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작품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응용되어야 하며 18부에 한정되어 있던 범위를 확장하여 다른 중앙정부기관(처·청)을 포함한 행정전체 조직의 시스템과 지방정부, 더 나아가 입법, 사법을 포괄하는 통합 이미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제원 1996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박영사, 2003
- 김명: 국가학, 박영사, 1995
- 박종민 편: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 2002
- 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 강신택·김광웅: 행정조직 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박우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문사, 2002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0
- 이평원: 행정조직의 이해, 책과공간, 2001
- 정상현: 현대행정과 조직사회, 학문사, 1998
- 유종해·김문성: 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 김하룡: 정책적 사고의 조건, 한울, 1994
- 황성원·함종석: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한국행정연구회, 2001
- 서성아·강경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_\_\_\_\_, 2001
- 강진원: 알기쉬운 역의 원리, 정신세계사, 2003
- 나카무라 케이코, 박재학 옮김: 나의 DNA, 전파과학사, 1998
- 정경원: 디자인경영, 안그라픽스, 2002
- 조동성: 디자인 혁명 디자인 경영, 디자인네트, 2003
- 데이비드 아커, 이상민 옮김: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2002
- Anholt, Simon, 김유경 역: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홍성태: 보이지 않는 뿌리, 박영사, 1999
- 권태화·조형재: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 크리스 젠크스,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술사, 1996
- 필립 B. 맥스, 황인화 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02
- 다카하시 마사토, 김수석 역: 심볼 디자인 그 의미와 역사, 지문문화사, 1998
- Bertalanffy, Ludwig von, 현승일 역: 일반체계이론, 민음사, 1990
- 안상수·한재준: 한글 디자인, 안그라픽스, 2002
- Total Identity: Total Identity, BIS Publishers, 2003
- 조명남: 국가 이미지통합 체계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3
- 공무원 연구보임 우수 논문집, 행정자치부, 2002
- 디자인학 연구, No. 22., 1997/10